■ 월드컵 소식

토고 피스터 감독 "한국전에 올인"

"스위스, 프랑스전은 그 때 가서 생각하겠다. 우선은 한국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7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독일 방겐지역 아마추어팀 FC 방겐과 친선경기(4-0 승)를 끝으로 월드컵축구에 대비한 모든 평가전을 마친 토고 축구대표팀 오토 피스터 감독은 한국과 치를 조별리그 첫 경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피스터 감독은 일단 이날 "만족스럽다. 오늘 경기는 친선경기일 뿐이다. 전력의 80% 정도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많은 득점 기회를 놓쳤다. 훈련을 통해 그 점을 좀더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골 결정력 문제에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피스터 감독은 이어 "한국과 경기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다. 스위스,프랑스와 조별리그 2, 3차전은 한국과 1차전을 끝낸 뒤 생각하겠다"며 태극 전사들과 맞대결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블래터 FIFA회장 "팔꿈치 가격 중징계"

독일 월드컵축구에서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은 특히 팔을 움직이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오해를 받으면 레드카드를 받을 수도 있다.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7일(한국시간) 뮌헨 국제방송센터(IB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의로 팔꿈치를 휘두르는 선수를 발견하면 가차없이 레드카드를 발급, 경기장에서 쫓아내라고 심판들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블래터 회장은 "빅스타들을 보호하라고 했다"며 "얼마전 유럽 경기에서 팔꿈치에 맞아 부러진 이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봤다"고 팔꿈치 가격에 대해 중징계하도록 주문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팔을 무모하게 쓸 경우 바로 경고를 받게 할 것"이라며 "각 팀 감독들에게도 이 같은 주의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프랑스 16강 확률 4.5대1"

홍콩 축구 도박사 예상

홍콩의 축구 도박사들이 한국이 프랑스와 함께 16강에 진출할 확률을 4.5대1로 점쳤다.

홍콩마사회가 주관하는 축구로또(足智彩)가 7일 독일월드컵 본선 진출 32개국의 우승배당률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의 배당률은 32개국 가운데 23번째인 150대 1로 나타났다. 1달러를 걸면 150달러를 딸 수 있는 배당률이다.

영원한 우승후보인 브라질이 3.15대1로 역시 가장 우승확률이 높은 나라로 뽑혔고 주최국인 독일 7대1, 잉글랜드 및 아르헨티나 9대1의 순이었다.

일본과 히딩크 감독이 지휘하고 있는 호주는 각각 200대1로 한국보다 우승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됐고 우리와 같은 조인 스위스는 100대1, 토고는 500대1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G조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4개국 가운데 한국이 8대1로 프랑스 1.48대1, 스위스 4대1보다 낮았고 토고 15대1보다는 높았다.

개막식에 펠레·마라도나 등 참석

'축구 황제' 펠레와 디에고 마라도나 등 역대 월드컵이 배출한 스타 플레이들이 오는 10일(한국시간) 뮌헨 월드컵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06 독일 월드컵 개막식 자리를 빛낸다.

dpa통신은 7일 펠레와 마라도나를 비롯해 역대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던 170여명이 독일-코스타리카 개막전에 앞서 열리는 개막식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브라질을 3차례(1958, 1962, 1970년) 월드컵 정상으로 이끌었던 펠레는 개막식 때 독일 출신의 슈퍼모델 클라우디아 쉬퍼와 함께 월드컵 트로피를 들고 입장한다. 또 1974년 서독 대회 때 네덜란드와 결승전에서 2-1 승리로 독일에 첫 우승컵을 안겼던 22명의 선수들도 개막식에 초청됐다.

체코 바이디소바 포핸드 공격 7일 파리 롤알가로코트에서 열린 프랑스오픈테니스 여자단식 8강전에서 비너스 윌리엄스를 꺾고 4강에 오른 체코의 바이디소바가 포핸드 공격을 하고 있다.

KIA 김진우 어깨 통증 엔트리서 제외

KIA타이거즈의 '토종 에이스' 김진우(23)가 우측 소흉근(어깨에서 가슴으로 가는 근육)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KIA는 "김진우가 이날 오전 서울 김진섭 정형외과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앞으로 1~2주 정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고 7일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포츠중계

8일(목)

▲메이저리그〈샌디에이고-밀워키〉(08 : 55·Xports)

▲독일월드컵 축구 평가전〈잉글랜드-자메이카〉(14 : 00·MBC)

▲일본 프로야구〈소프트뱅크-요미우리〉(17 : 50·Xports)

▲프로야구〈두산-현대〉(18 : 00·KBS SKY SPORTS), 〈한화-SK〉(18 : 00·SBS 스포츠), 〈LG-삼성〉(18 : 30·MBC ESPN)

9일(금)

▲PGA투어 바클레이스 클래식 1R(05 : 00·SBS스포츠)

女농구단 광주 신세계 연고지 부천으로 이전

광주·전남지역의 유일한 여자프로 농구단인 광주 신세계 쿨캣이 연고지를 부천으로 옮긴다.

신세계는 "그동안 연고지로 삼아왔던 광주 대신 오는 22일 용인 삼성생명과 경기부터 부천실내체육관을 홈 구장으로 쓰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신세계는 이날 오후 부천시청에서 협약식을 갖고 연고지 이전을 공식 발표했다. 팀 이름도 '부천 신세계 쿨캣' 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1998년 여자프로농구 원년부터 광주를 홈코트로 사용했던 신세계는 이로써 6일 열렸던 구리 금호생명 전을 끝으로 '광주 시대'를 마감하게 됐다.

한편 신세계는 이날 협약식에서 "부천시의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1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등 부천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스포츠 꿈나무 육성,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세계는 또 "부천 인근지역의 이마트 부천점, 부평점, 신월점, 공항점과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등을 통해 정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부천시에 소재한 장애우 시설들과의 자매결연 등 다양한 공헌 프로그램도 함께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신세계 연고지 왜 옮기나

구단 "장거리 이동…경기력 저하" 지역 체육계 "상업적 목적" 비난

광주 신세계 쿨캣의 갑작스런 연고지 이전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신세계측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 ▲수도권 타 구단들의 지속적인 연고지 이전 요청 ▲여자프로농구의 활성화 도모 등을 연고지 이전의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신세계측의 주장에 대해 지역 체육계 안팎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최근 프로축구 부천SK가 만성적 적자운영을 타개하기 위해 이동거리가 가장 긴 제주도로 연고지를 옮기는 등 재정과 관련된 연고지 이전은 있었지만 이동거리를 이유로 이전을 결정한 경우는 전무하다.

광주시 농구협회 권혁주 전무이사는 "모든 프로 스포츠가 전국을 연고로 움직이는데 수도권에서 불과 3~4시간이 소요되는 광주가 거리상 문제가 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면서 "결국 광주는 홍보효과도 거둘만큼 거뒀고 돈도 안되니까 떠난 것이 아니겠느냐" 고 분통을 터트렸다.

프로농구 첫 해인 지난 97년 광주를 연고로 탄생했던 나산 플라망스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연고지를 옮겼다.

플라망스는 창단 3년만인 2000년 골드뱅크에 인수돼 코리아텐더로 이름을 바꾸고 여수시로 옮긴 뒤 2003년 부산으로 재이전하며 광주·전남과의 인연을 끊었다.

코리아 텐더는 당시 이윤 창출은 커녕 우선 운영비 등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해 연고지를 바꾼 것이어서 지역민들은 비난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보냈다.

그러나 광주 신세계 쿨캣의 경우 난데없는 이동거리에 따른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라는 궁색한 이유를 들고 나온 것이다.

김재석 경실련 광주지부 사무처장은 "기업들의 프로 구단운영은 이익적인 측면을 떠나 사회 공헌적인 면이 크다" 면서 "신세계의 일방적인 연고지 이전은 기업의 도덕성을 무시한 철저한 상업주의의 결과물"이라고 비난했다.

신세계 쿨캣이 연고지를 옮기는 부천의 경우 기업을 홍보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도시라는 점이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인구 86만의 고밀도 도시인 부천은 신세계의 할인매장인 E마트와 최근 인수한 월마트(부천 중동점)가 '자리잡기' 에 들어갔으며 특단의 홍보전략이 절실한 상태다.

결국 부천은 연간 30억여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농구단이 홍보효과를 거두기에는 최적의 도시로 선택된 셈이다.

이에대해 광주 신세계 관계자는 "쿨캣이 최근 몇년동안 최하위권을 맴도는데다 홈경기를 찾는 관중수도 현저히 줄어든 상태" 라면서 "팀 분위기 쇄신과 한국여자농구의 발전 차원에서 연고지 이전을 결정한 것일 뿐 상업적인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다" 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